

월요논단



김 동 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주어 대사전'이 꼭 담아내야 할 것들

찬하려는 것일까. 기존 사전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한계를 극복해낸 좋은 사전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사항을 부탁코자 한다.

첫째, 새로 나올 '제주어 대사전'은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 활용되도록 편찬되어야 한다. 이는 새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한국어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 온라인으로 제공된 지 10년이 더 지났고, 고려대가 펴낸 '한국어 대사전' 콘텐츠도 '다음국어사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요즘엔 종이 사전보다는 온라인 사전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제주어 대사전' 편찬에서도 감안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제주어 대사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발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사전의 장점은 검색이 손

잡다는 점과 함께 발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장점은 적극 활용해야 마땅하다. '아래아(·)'가 구현된다는 점이 제주어의 특점으로 꼽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아듣고 발음하기는 쉽지 않다. 외지인들은 물론이고 제주 토박이들도 40대 이하에서는 제대로 발음하는 이가 드물다. 이대로 간다면 제주어의 모음체계에서 아예 사라져버릴 날이 머지않았다. 온라인 사전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제주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토박이의 발음이 온라인 '제주어 대사전'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나은 제주어 보전 방안이 어디 있겠는가. 발음 서비스야말로 이번 사전 편찬 작업에서 절대적 필수적 사항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제주어 대사전'은 용례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제주어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결갈

은 불만은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주어에서만 존재하는 말들, 표준어와는 다른 뜻이나 다른 뉘앙스로 쓰이는 말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뜻풀이와 함께 적절한 용례를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 채록된 여러 유형의 구술(口述)자료, 문학작품 등의 문헌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용례 불충분의 불만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폭넓은 활용을 주문하고 싶다. 핵심역할은 제주어 전문가와 국어학자가 담당해야 하겠지만, 어휘 수집, 용례 제시, 검증과 교열 등의 과정에서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자. 기한에 쫓겨 부실해진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사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그 이후가 중요하다

제주 세계지질공원이 다시 재인증을 받았습다. 2014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재인증되는 쾌거입니다. 이로써 제주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트릴피 크라운(3관왕)의 위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유네스코가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확정 문서와 함께 인증서를 보내왔습니다.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현장실사를 거쳐 그해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최종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처음 인증받은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2022년까지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평가하는 세계지질공원은 재인증을 받는게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보다 까다롭다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의 재평가가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세계지질공원은 경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제출 후 현장실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인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만만찮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재인증 심사에서 33곳 중 오스트리아 카니알프스카 레드카드를 받아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주에서 세계지질공원 총회가 열립니다. 자그만치 70여개국에서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제주 세계지질공원이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제주자연의 가치를 전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보다 힘썼으면 합니다. 바로 세계지질공원을 모티브로 한 지오파드(Geo-Food)나 지오팜(Geo-Farm) 등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애급입니다. 세계지질공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지속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마당

부부의 날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고 기 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새마을지도자

사는 게 소원이예요'라고 말한 어느 한 아이의 TV 인터뷰를 본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아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시초가 돼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날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숫자로 21일에 정해진 기념일이다.

5월 21일 만류이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아침을 시작했으면 어떨까 한다. 부부의 연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인연이며 부부가 서로 역사사지의 심정으로 배우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행복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가족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부부의 날을 맞이해 나의 힘의 원천이 되는 내 인생의 반역자와 그와 함께 만든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부부간 배려와 존중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행복 가득한 날이 돼 가정의 달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오늘부터라도 서로에게 미뤄왔던 진심어린 마음들을 표현해보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우리 엄마·아빠가 함께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전동 키보드 관련 계류 법안 다른 당 때문"

황교안 대표, 업체간담회 가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동 키보드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를 다른 당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

19일 황 대표와 제주스타트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한 업체 관계자는 "전동 키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규정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을 처리해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달라"고 당부.

이에 황 대표는 "우리가 발의 했지만 타당이 관심 없고, 경쟁 때문에 국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청년 지원 법안은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하겠다"고 강조.

'플러징에 원리용이 뿔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지만 김스 소식에 미뤄졌다는 후문.

제주도 한 관계자는 "오는 29일 각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제주포럼에서 개최사를 맡은 원지가가 결국 거머쥐어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걱정.

"제주 환경수용력 검토해야"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

연구센터는 "제주도는 섬이라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적정량 한 공수요를 책정할 경우 반드시 하수처리능력, 쓰레기처리능력 등의 환경수용력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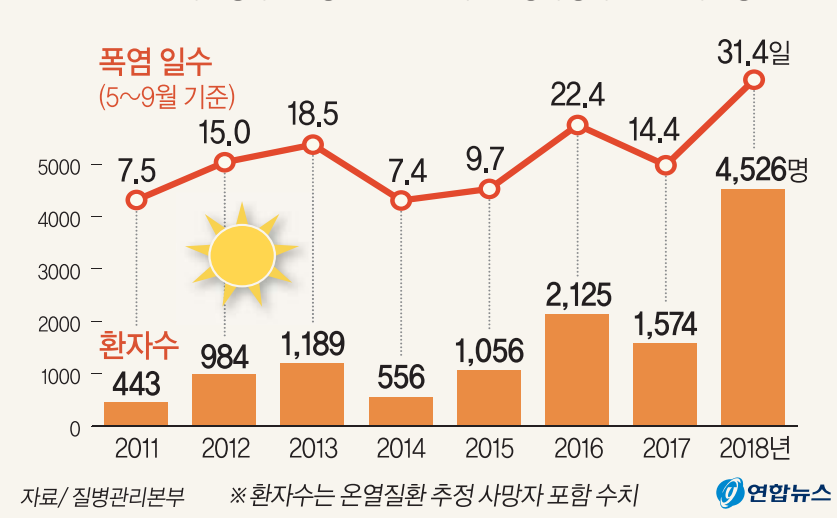
특히 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 및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

원지사 플러 타다 김스 신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8일 제주 K-POP 플러장에서 열린 '2019 동심 한마당'에 참가해 '플러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 발목 김스 신세.

그래픽 뉴스

온열질환자 수 추이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여산송공 두경 (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니주김씨 계생 (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신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WIDEX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제주도정 소식
주목가격 이익인상기간 및 현장담대 운영(5월 30일까지)
현장담대 집중운영기간 : 2019.5.25.24 중 14:00 - 17:00(전문의 참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종업 (향년 10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해외농업(개발)
(영농조합원, 10명모집)
지역 : 베트남(다낭, 팡남)
사업명 : 한라봉, 레드향, 고품질(만감류)